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청도민과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의 새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공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영상물을 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칩니다. 개방적이고 시민친화적인 정부청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금강변과 전월산,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어 주신 '세종'이라는 이름도 아주 훌륭합니다. 행복도시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익과 혁신으로 우리 역사의 융성기를 이뤄 내신 세종대왕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대선 공약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2004년 1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그리고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힘든 산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틀림없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 오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국내외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완벽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주민이 대화하고 협력해서 1년여 만에 토지 보상도 마무리했습니다. 정책 집행의 모범사례라고 할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입법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충청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곳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활터전을 옮기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행복도시의 첫 번째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생활대책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 건설의 모범을 보여 주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건축·환경·교통·정보통신·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담아 낸 가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의 건설 기술과 도시 조성의 문화를 배워 가게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나 호주 캔버라, 세계문화유산인 브라질리아보다 더 멋진 도시로서 국가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입니다.

행복도시는 행복도시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도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의 건축과 도시건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이 새로 건설되는 도시의 모범이 되고, 기존의 도시들을 가꾸는 데에도 좋은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또 비용만 높이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과 문화, 역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을 가장 우선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지역개발 계획과 같은 공간 구조의 개편, 제도개혁, 재정 지원과 더불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누리사업을 통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수도권과 대덕을 제외한 지방 연구개발 예산도 2003년 27%에서 올해 4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의 전체 재정 규모도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특히 지방의 자율 재원을 2003년 82조 원에서 올해 111조 4천억 원으로 30조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방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의 거점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도시에 이어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도시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해 도시민이 찾고 은퇴자가 돌아올 수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에서 농촌까지 우리 국민의 생활환경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중앙으로 집중되는 속도는 좀 줄여 놓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 순유입인구가 2002년에 21만 명에서 2006년 11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넘게 심화되어

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단시간에 고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교육·복지·의료 등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여들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은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수도권에도 큰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수도권은 비워야 경쟁력이 더 높아집니다. 균형발전으로 수도권이 숨통을 트게 되면 보다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균형발전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비워진 공간을 넓고 푸르게 활용해 쾌적한 생활환경과 최고급 지식기반을 가진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는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허브로 집중 육성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효율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부처는 모두 이곳으로 오는 것이 순

리입니다. 청와대도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면 좋을 것입니다. 북한산 일대를 비워서 공원과 숲으로 잘 가꾼다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몇 분 의원님이 와 계십니다만, 경상도에 계신 의원님, 전라도에 계신 의원님들도 출퇴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일치하여 행복도시 건설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반대해 왔던 분들도 지금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이들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그린 그림 위에서 언젠가는 이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복도시를 만듭시다. 국가균형 발전을 성공시켜 우리 아들딸들에게 살기 좋은 국토, 더 경쟁력 있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다시 한번 행복도시 '세종'의 기공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